

지역 소식통

부안군, 잼버리 홈스테이 사업 참여가정 모집

부안군은 세계잼버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한국의 생활 양식 및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홈스테이 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홈스테이사업은 세계잼버리 대회 기간(8월 1~12일) 동안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와 부안군을 알리고 부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참여형 국제화 사업이다.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가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로 사용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후 희망가정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대표 음식점, '고창 방문의 해' 캠페인 동참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고창을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고창 홍보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고창 방문의 해' 현수막을 내걸고 고창 관광지도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창을 홍보하고 있다.

고창을 찾는 한 관광객은 음식점에 게시된 관광 배너를 보고 고창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해 봤다며 '관광 홈페이지에서 고창의 여러 명소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표 음식점과 함께 '고창 방문의 해' 홍보 운동 전개와 깨끗하게 유별나게 운동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음식점의 적극적인 홍보 운동에 감사하며 고창을 찾는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습지보전 · 교육 세계 모범 될 것”

노형수 고창군부군수, 프랑스서 열린 습지도시 시장단 원탁회의 참가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습지도시 모임에서 고창군의 습지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연안(고창갯벌)과 내륙(운곡습지)을 모두 보유한 고창군의 자연환경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노형수 고창군부군수가 지난 8~10일 프랑스 아미앵에서 열린 '제2차 습지도시 시장단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전 세계 습지도시도시 간의 국제협력 강화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고창군을 비롯해 10개국 25개 도시의 시장·군수들이 각 지역의 습지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화두는 연연, 기후변화에 따른 '습지보전 방안'에 집중됐다.

노형수 부군수는 운곡탐사르습지 논둑 복원 사례를 설명했다. 운곡습지 주민들은 습지가 수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순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논둑을 막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논둑 복원을 시작한 후 반딧불이, 다슬기 등의 생물 개체수가 증가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습지도시 모임에서 고창군의 습지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연안(고창갯벌)과 내륙(운곡습지)을 모두 보유한 고창군의 자연환경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였으며 현재 탐방객들에게 습지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갯벌역시 고창군은 바다에 독을 쌓아 만든 양식장을 허물어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는 "고창군은

오랫동안 습지의 보전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탐사르총회 결의안에 따라 교육청과 협력하여 습지교육이 정규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습지교육을 선도하는 탐사르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수출 확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배상면주가 고창LB 복분자주, 호주 수출길 올라

고창군은 최근 배상면주가 고창 LB(대표 안재식)가 자사 복분자주 브랜드인 '빙탄복'과 '복분자음'이 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 고창LB의 대표제품인 '빙탄복'은 시원하게 복을 삼키다라는 뜻으로 국내 최초 탄산 과일주다. 자연발효로 빛은 복분자술을 저온에서 장기 숙성하고 탄산을 가미해 만든 술로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알콜도수 7도 정도의 순한 맛으로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분자음'은 한번 마시면 '음~'이란 감탄사가 나온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소주에 복분자를 넣어 담근 술과 달리 복분자 그 자체를 발효시켜 만들었다. 국내산 복분자만을 100% 사용해 단맛의 여운이 길게 남고 이취가 없는 게 장점이다. 2017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미 애주가들 사이에선 맛과 향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물량은 9만 6천 달러분(1억2500만 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호주 시드니 현지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배상면주가 고창LB의 대표제품인 '빙탄복'은 시원하게 복을 삼키다라는 뜻으로 국내 최초 탄산 과일주다.

예정이다. 안재식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고창 복분자주의 호주 수출이 이루어져 자부심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배상면주가 고창LB의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 성과에 고창 지역 내 복분자 생산 농가들의 소득향상 효과가 크다고 지역 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이 지속적인 소득 향상과 수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 최대 40만원 지급

10만원 상향돼 학생·군인 최대 40만원·일반인 15만원 지급

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 당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

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2명 배정 '일손부족 해소' 기대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2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법무부 배정 심사회의를 통해 전북 10개 지자체에 총 888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그 중 정읍은 두 번째로 많은 162명(18.8%)이다.

이들은 지역 내 53농가에 각각 배치돼 농업 일을 하게 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노동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시는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거나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1명이 41농가에 배치됐다.

또한 소농상담실을 별도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수급으로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올해 세번째 다섯째 출생가구 탄생'

지난 7일 정읍시에 올해 세 번째로 다섯째 아이가 탄생했다. 해당 가정은 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이 가정에 출생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지급한다. 이후 6개월마다 200만 원 씩 4회를 지급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이 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해 산모는 1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은 본인부담금 6만 원 정도면 3주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게는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이유식



을 만들 수 있는 보충식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차량보조금 등 육아용품 지원, 육아수당 월 10만 원(정읍사랑상품권), 부모급여 월 7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을 제공한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과 출산축하 한우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정읍시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출생·양육 지원 서비스 등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